

전기차 충전요금 내년부터 반값 ... 3년 한시적

1만4000대 보급 ... 보조금 대당 1400만원+ α

급속 충전기 530기 설치 인프라 확대 구축

내년에 전기차 1만4000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또한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충전망 확대와 충전 요금도 절반 이하로 인하된다.

정부는 12일 최고 국회에서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전기차 1만 4000대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2월 8일까지 판매된 전기차는 4622대로 지난해(2821대)보다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청대수는 7042대다.

내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대당 14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500만원을 추가 지원받으면 19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최대 40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을 받게 된다. 이같은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내년 급속충전기 설치 물량은 530기로 올해 330기보다 60% 늘어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대도시 등 전기차 보급이 앞선 곳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률이 높은 충전소에는 충전기를 2기 이상씩 설치한다.

5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집중충전소가 늘어난다. 이곳에서는 기존보다 최대 2배 속도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향후 출시될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량도 30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요금이 50% 정도 인하되고 기본요금도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

■ 내년 1월 특례요금제 적용 이전·이후

구분	이전		이후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	
기본 요금(월)	1만1000원	7만5000원	0원
전력량 요금	52.5~244.1원/kwh	평균 313원/kwh	50%할인

※ 급속충전기는 추후 결정

전력량 요금은 52.5원~244.1원/kWh당 수준으로, 요금은 사용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내년부터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예를 들어 연간 1만5000km를 운행하는 운전

자(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 시)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전기차는 1kWh의 전기로 6km가량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급속충전기도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내년 전기차 1만4000대가 보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충전망 확대와 충전 요금을 절반 이하로 인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세웠다. 광주시청 주차장에 관용차로 활용되는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자동차 수출 2년 연속 감소 ... 금융위기 이후 처음

11월까지 361억 달러 ... 전년보다 13% ↓

자동차 수입액 2년 연속 100억 달러 넘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 수입액은 판매 대수 감소에도 비싼 프리미엄 차량의 수입 증가로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자동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액은 360억 7000만 달러(약 42조576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4억3000만 달러에 비해 13%가량 감소한 실적이다.

올해 자동차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현대차와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 노조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른 판매 감소도 수출 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

12월에 해외 판매가 회복되더라도 올해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의 458억 달러에 못 미치는 400억 달러 안팎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2014년에 458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또다시 수출액이 줄어들면 2년 연속 감소하는 셈이 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2009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에 자동차 수입액은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입액은 89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

간의 86억4000만 달러에 비해 3.2% 늘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자동차 수입액은 역대 최고액이 될 전망이다. 연간 기준으로 자동차 수입 최고액은 지난해에 기록한 107억8000만 달러다.

올해 자동차 수입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도 수입액이 증가한 것은 고가의 프리미엄 차량 수입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수입차 판매 대수는 20만5162대로, 전년 동기(21만9534대)에 비해 6.5%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수입차 판매액이 늘어나면 2010년 이후 7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라며 “국내 완성차 업계가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장차 제조사 광림, 나노스 인수 마무리 단계

특장차 제조업체 광림은 내의전문 기업 쌍방울과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광학부품 업체, 나노스에 대한 인수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12일 밝혔다.

나노스에 대한 회생 계획안이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스는 삼성전자 등에 손 떨림 방지센서와 광학 필터를 공급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고객사의 발주량 감소로

수익이 악화해 지난 4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림은 나노스가 필터시장에서 가장 큰 생산능력을 보유한 데다 경쟁 생산업체는 2곳에 불과해 실적 악화에도 시장 경쟁력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림은 법원의 공개 입찰에 참여해 지난 9월 쌍방울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제2파산부로부터 나노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중고차 시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국토부·교통안전공단

‘마이카정보’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중고차 시세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2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사전>에서 제공 중인 중고차 시세를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도록 공간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마이카정보’에 관련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중고차 시세는 전국·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현대캐피탈, KB차차차, SK렌카 등 5개 기관의 ‘전월 거래시세’를 취합한 것이다. 차종

이나 연식, 제작사, 시세정보 제공기관 등으로 분류돼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중고차 시세를 알 수 있어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구매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12일 화성시청 청사에서 채인석 화성 시장, 박동일 현대·기아차 전자기술훈터장 전무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한 V2X 시스템 실증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현대·기아차, 화성시와 손잡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현대·기아차가 화성시와 손잡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

현대·기아차는 12일 화성시청 청사에서 화성시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한 차량·사물 통신(V2X) 시스템 실증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인 ‘V2X 시스템’을 실제 도로에서 구현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 최초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MOU를 통해 현대·기아차는 화성시에 V2X 인프라 구축, V2X 시험 차량 운행, V2X 관련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화성시는 이에 필요한 교통 신호 정보 시설물 구축 관련 행정 협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갤러리 봄

동구 예술의 거리 20-6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작품전시장

대표 최정화 ☎010-9078-1800

튼튼동물병원

동구 계림동 이마트상가층
각종 백신 및 미용 중성화수술, 호텔
각종애완용품 취급 전문

☎062)511-7582, 010-3263-758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영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6·92 (육구이)

북구 우산동 중문로 33-1번길
(우산초등학교 후문입구)
간성술석쇠취이, 숯불구이, 석쇠숯불곱창
석쇠숯불막창 배달전문점

☎062)464-0692

맘스터치 빛가람1호점

전남 나주혁신도시 빛가람중학교앞
단체주문 및 예약환영
"전화로 주문하시고 15분후에 매장을
방문하시면 바로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061)333-2256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담전문사거리
약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감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남원가정식추어탕

동구 호남동 73번지
(파레소호텔 앞)
건강하고 행복한 상차림

대표 진화현 ☎062)226-0911

국수나무옹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한마음정육식당

북구 용봉동 159-9 (북구청 전대후문)
정육식당형 돼지고기전문점
돼지1마리(1kg) 37,000원, 돼지반마리(500g)
19,000원, 국내산생삼겹(250g) 12,000원
대표 김진표 ☎062)261-8292

우 청 미술관

동구 금남로2가 31번지
한국 채색화(만화) 연구소

대표 김성수 ☎062)383-8408

행복공인중개사

동구 중앙로 218번지
고객만족, 책임중개

대표 강인철 ☎062)225-3303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대풍쌀농산

북구 서방로 39번길 9-2
(중흥평화맨션입구)
일반미, 찰쌀, 보리쌀, 현미, 서리태
팥, 들깨, 녹두, 참깨 등 잡곡 도·소매

대표 박경열 ☎062)267-0101, 010-3609-7117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옆
개인단체 환영(강의내용: 사주, 음권,
양권, 사주학, 수지학, 수축침, 이침)

☎062)432-132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대,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요식업 친환경화구

관리하기 불편한 일체형화구
가스다이에서 뚜껑이 분리되는
친환경 화구로 교체
대리점 하실분 환영. 유사품주의

☎010-4607-1512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정입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로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